

(15)

김 지모데이 선생님

김 지모데이 선생은 1917년 9월 7일에 원흥 변천강 빈씨에스구역 노보끼엵스크 시에서 탄생하시였다. 고향도시 노보끼엵스크에서 1935년에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원흥으로 복귀 한인들의 강제 어구가 1937년에 있은후 카라흐 공화국에 실려 들어온 김선생은 1939년에 동북카라흐스탄주 세리비탈라지진스크 시에서 교원대학을 졸업하였다. 1941년에는 말바이르시 사범 대학을 나왔다.

김선생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고향도시에서 초학교 교원일을 하시였다. 강제어구 이후 1937년부터 딸리쿠르간주, 카라탈구역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일하시다가 1939년에 교대를 나간함라트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시였다.

김 지모데이 선생은 1948년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의 결정에 의하여 북한에 파견되였다. 1948년 부터 2년간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원일을 하시였다. 1950년에 조선전쟁이 시작되자 김선생은 연변군대에 참모로써 백업적 정치간부로 복귀하시였다. 1952년부터 군중에서 제대되어 문화선전성 관리국장으로 일년간 일하시다가 황해도 해주시 교대 부장장으로 일년간 일하시다가 1953년 부터 선의주 교대 교장으로 일하시였다. 1954년 부터는 평양에 다시 소환되어 교양성 교육관리국장으로 1958년까지 일하시였다.

김 지모데이 선생은 1958년 3월에 북한에 귀국하시였다.

조선로바에 도착하신 김선생은 공산당 중앙 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전가득과 함께 알바아다에 도착
하였다 알바아다에서 김선생은 1958년 부터 1962년
간 알바아다 중앙고급당학교에서 공부하시었다.

당학교를 졸업하신 김선생은 1962년 부터 1966년까지
까자논 공화국 극각 기술전문고위원회 부책임자로 일하고
1966년 부터 1974년까지는 산업기술전문학교 교장으로
일하시었다.

김 지리보 도리어 선생은 1974년 공화국 공훈년급생생
활에 넘어가 1991년 6월 1일 에 서거하시는데 그 날까
지 알바아다 시에서 자손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241 X 4 - 1299년 디유기신은에서.